

採卵鷄產業의 現況과 問題點

서울대학교 農科大學敎授, 韓國家禽學會長 吳鳳國

I. 緒 論

採卵鷄產業은 專業經營에서 商業化 내지는 企業化經營形態로 移轉되는 轉換期에 位置하고 있다. 過去 20 年間に 副業養鷄로부터 始作하여 이와같이 急速度로 採卵鷄產業이 成長하게 된 것은 優良한 產卵能力을 가지는 병아리의 供給과 安定된 飼料와 品質改善, 飼料技術의 向上, 適切한 防疫事業등에 힘입어 比較的 값이 싸고, 消費者 嗜好에 迎合할 수 있는 鷄卵을 生産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採卵鷄產業의 發展過程에서 그간 여러 차례의 不況을 겪은바 있는데, 이는 海外依存度가 높고 또한 일시에 多量生産이 可能한 產業的 特性으로 인하여 生産過程과 需給調節 裝置가 마련되지 못한데서 오는 結果라고 하겠다. 이러한 不況은 採卵鷄產業의 發展過程에서 겪어야 하는 하나의 現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採卵產業을 安定的으로 發展시키는데 貴重한 敎訓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날로 격심해지고 있는 保護貿易主義와 한편으로는 市場開放을 강요하는 先進國의 貿易政策을 감안할때 머지않아 鷄產物이 韓國市場으로 유입될 可能性이 크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러한 現實下에서 우리나라 養鷄產業이 지향하여야 할 바는 國際競爭力을 強化시켜야할 것으로

첫째는 勞動集約的 生産에서 技術集約的 生産方法으로 轉換하여 生産性을 提高하며 生産코스트를 節減하는 方案과

둘째는 流通과 加工에서 商品性을 向上시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品質 좋은 달걀을 生産 供給하며 GP 센터를 中心으로한 流通體系 改善方案

세제는 生産調整과 달걀의 消費促進으로 業界의 持續的인 發展을 꾀하며

네제는 政策的으로 養鷄産業의 安定的 發展을 위한 生産基盤의 造成과 産業의 保護育成策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採卵養鷄産業은 比較的 安定화된 經營形態를 유지하고 있는 業種이기는 하나 先進國 養鷄産業의 經營水準과 비교하면 아직도 解決하여야 할 많은 어려운 課題를 안고있기 때문에 이번에 韓國家禽學會와 大韓養鷄協會가 共同으로 심포지움을 開催하여 우리나라 養鷄産業의 安定的 發展을 위한 生産性向上과 國際競爭力의 強化에 대한 問題點을 導出하고 이의 解決方案을 模索하고자 하였다.